

안녕하세요, 전 조성민 이라고 합니다. 전 뉴질랜드에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오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여기 홀스웰 학교에서는 더욱더 좋은 추억을 남겼습니다. 좋은 공기, 나무와 풀이 사방에 펼쳐있고, 여기는 정말 자연과 어우러진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홀스웰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적응하기 쉬웠습니다. 기대문외교 왜냐하면 많은 친구들이 제가 왔을 때 많이 도와줬고. 역시 제니 선생님과 많은 선생님들이 잘 도와주셨죠. 그렇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저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2011

4월엔 전 학교에서 마라톤을 했습니다. 거리는 5km 정도였으며 전 사실 조금 긴장했었습니다. 그러나 레이스가 시작되자 제 몸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제치기 시작했습니다. 5분후 전 4등으로 경주를 마쳤습니다. 처음 한것 처럼 사실 전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후 저는 1등, 2등 그리고 3등과 함께 다른 학교들과 마라톤 경주를 하기 위해서 다시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이 있었죠. 그러나 아들의 스피드가 달랐습니다. 저는 밀리고 밀려 순위권까지 내려갔습니다. 결국 좋은 성적이 아닌 9등으로 경주를 마쳤습니다. 아예 다짐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해서 1등 큰 대회에 나가겠다고.

그다음에 과이어라는 노래부르는 그룹에 들어갑니다. 전 원래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에서 노래를 조금더 잘부르는 애들이 있는 보컬 그룹에도 오디션 통해서 들어갈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습하고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Music Festival 이라고 하는 축제에 가서 노래를 성공적으로 잘 부렸습니다. 정말 멋진 뉴질랜드에 와서 구경하 보세요. 아마도 2011 지금까지 눈앞에서 최고의 될 겁니다.

7월쯤엔 학교에서 하는 축구부에 들어갑니다. Friday Sports 라고 매주 금요일마다. 2011 근처에 있는 공원까지. 다른 학교와 하키, 넷볼, 럭비 그리고 축구 같은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겁니다. 강한 상대도 있었지만 그 팀들도 이기고 우리는 순조로운 토너먼트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에서 드디어 결승 전을 했습니다. 2011 그 경기는 오히려 상박이었습니다. 상대팀도 매우 잘했지만 저희팀이 잘 싸워준 탓에 2:1로 이겼습니다.

제가 고에도 말했듯이 전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취미로 피아노와 기타를 배우게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대회에서 전 Stroll on 이라는 재즈 스타일의 곡을 선택해 2등을 하고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기타 레슨도 받았습니다. 하루, 하루 실력은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음악 대회에 나가서 (바이올린, 기타 등) 똑같은 피아노 곡으로 3등을 했습니다. 기타로도 도전해보았지만 아쉽게도 순위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에 학교 수석대표로 저를 포함해서 4명이 큰 대회에 나가서 96개의 학교 팀 중 1등을 하는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지금 제가 블리드라는 문제는 그 대회에서 나왔던 문제 중 하나입니다. 물론 영어로 적혀있죠. "두개의 페이 있는데 한페이가 다른 페이보다 4달러 80센트 더 비싸다고 한다. 그리고 두페이의 가격은 총 16달러 80센트이다. 더 비싼 페이는 얼마인가?" 이 문제의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천재입니다!

뉴질랜드와 한국의 계절은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 여름이라면 뉴질랜드는 겨울이고, 한국이 겨울이면 뉴질랜드는 여름이라고 볼 수 있죠. 전 여름 스포츠 대회에서 골프를 선택했습니다. 뉴질랜드 하면 골프입니다. 많이 싸지만

한국에는 한번 할때 돈을 훨씬 많이 내야 합니다. 골프채도 가지고있었고 레슨도 조금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와 3명은 골프 대표로 뽑혀 골프를 열심히 쳤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나고 우리 팀은 총 45개를 기록했습니다. (9홀) 다른 팀들은 모두 50개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프 챔피언이 되는 엄청난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1년 이 하이랜드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캠프의 장소는 바로 뉴질랜드의 가장 높은 산이 있는 곳, 바로 마운트 쿡 (Mount Cook) 캠프장이었습니다. 이 캠프가 제 인생에 갔던 캠프 중 가장 멋지고 아름다웠던 캠프였습니다. 많은 활동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멋졌던 활동은 양아를 낚는 것이었습니다. 보트를 타고 양아수변을 돌아다니다서 떼어내고, 만져도 봤습니다. 마운트 쿡은 만년설이 있기 때문에 그위에서 양아가 생식 쿨러 풀어줬다고 합니다. 양아를 낚을때 저이빨이 빠졌습니다. 황금어사 몇은등산 채취하고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

킴앤지보다 머리가 좋은 뉴질랜드 새 (Kea)를 보고 걷는 Hoher Valley walk 같은 것도 있었고 산악구조대를 지원하는 SAR (Search and Rescue)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 설명해주시는 선생님들과 라 부도 두루미 : 함께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뉴질랜드 클라이밍 꼭 가봐야 할 곳입니다.

2012

2012 년도로 넘어가면서 점점 새로운 것에 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철인 3종 경기였습니다. 철인 3종 경기는 수영, 달리기 그리고 자전거타기로 이루어진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제가 처음 해보는 거였습니다. 수영 100m, 자전거 8km 그리고 달리기 2km 를 완주해야 했습니다. 수영으로 제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에겐 점점 스피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는 쉬웠지만 마지막의 달리기가 문제였습니다. 달리다가 걷고, 달리다가 걷고를 반복하며 겨우 4등으로 완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대표로 나갈수 있었지만 캠프를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2012년의 캠프는 작년 캠프보다 멋진 않았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더욱 다양한 활동을 했죠. 카약도 타고,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가장 재밌었던 것은 코스타어링 (Coastering) 이었습니다. Coastering이란 해안을 돌아다니면서 다이빙도 하고 스쿠버에서 점프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 대략 10미터 정도에서의 높이에서 혹은 저천공 베고 함께 점프했습니다. 아찔했지만 스릴있기도 했습니다.

농구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하지는 못했지만 자신감과 이해야겠다는 의지는 충분했습니다. 대략 10 경기로 이루어진 농구 토너먼트에서 몇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팀은 그것을 극복하고 멋지게 결승전까지 올라갔습니다. 저한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체력이 부족해서 전반기 뛰다가도 힘들어서 쉬고 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아예 전만을 못 뛰었습니다. 그리고는 후반기에는 제대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팀은 힘들었기 때문에 자구전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50초가 남은 가운데, 우리 팀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50초를 잘 막고 1등을 차지했습니다. 덕분에 트로피도 차지했습니다.

6월쯤에 뉴질랜드 원주민들이 도와주는 그룹에도 들어갔습니다. 그 그룹에선 마오리어를 배우고 저희는 약간의 *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습을 이길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연습을

해서 어려운 부분을 이겨내고 지금은 3곡정도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알아갈수록 더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2012년의 마라톤을 달렸습니다. 학교 마라톤을 뛴 대회에선 3등을,
그다음에서 다른 학교와 경연을 할땐 7등을 해서 한국으로
리자현 서울시대회에 나가는 데이나 마찬가지로 캔터베리 마라톤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캔터베리 마라톤에선 1등이 되기 시작했
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좋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죠. 100 명중 34등에 들어왔습니다.

이번년에는 점프 잼 (Jump Jam) 이라는 댄싱 그룹에 들어가서
국제대회에 나갈수 있는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에어로빅 같은
것이지만 훨씬 더 활기차고 재밌습니다. 처음엔 오디션이 약간
어려웠지만 잘 극복해내고 잘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다양합니다.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할수있고 동작도 다양
하게 배울수 있습니다. 우리학교는 드림프를 총 3개, 2개는 국제대회에서
2등이고 하나는 3등입니다.

기타에도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토너먼트에선
축구를 했는데, 미니 축구여서 한게임이 10분 밖에 안됐습니다.
강한팀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하나 제치고 결승전까지 가
우승을 했습니다.

체스 대회에서도 참가하였습니다. A 팀의 주장으로 나가는데도,
전 체스를 잘 못하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체스팀에는 제 동생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되서 잘 못할까라
생각했는데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캔터베리 대회에서 1등
있습니다. 체스 대회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캔터베리 대회에서는 좋은
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자기 양팀다고 양관함을 씁죠.
그러나 제 팀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 다음은 남섬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큰 대회입니다. 사실 이게
처음중 가장 좋아하는 거라더군요. 남섬 대회에선 3등을 해서 이렇게
2등과 1등을 남겨주고 왔습니다.

이번년에는도 수학경시대회 (Contamath) 에 주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잘 해냈다는 자질을 하고서요. 그러나 이번년의 문제가 뭐가 안풀린다 생각했습니다. 다른 팀들은 술술 잘 풀고 넘어가는데 우리팀은 한문제에 막혀 날만 뚫고 풀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96개의 학교중 7개 들어있습니다. 나쁘진 않은 성적이었지만 저를 만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한문제만 더 풀어도 15등 정도로 강등 필수 있었지만 실패라고 말았습니다.

여기 피아노대회도 놓칠수 없었습니다. 이번년에는 하얀색 삼승해서 이걸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친곡은 'Blues' 라는 재즈곡이었습니다. 제가 재즈곡같은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곡을 택했죠. 멋지게 연주한 다음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1등이었습니다! 메달을 수여받게 된 너무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연극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이~ 한국인이 얼마나 영어를 잘한다고 연극을 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친구들과 주인공으로 출연해 성공적으로 연극을 했습니다. 연극의 내용은 시간여행을 하는데 뉴질랜드의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중요한 일을 시간여행으로 보고, 듣는 것입니다. 좀 많은 대사를 외워야 했지만 열심히 외워서 실수 하나 없이 끝마쳤습니다. 저도 사실은 영어로 연극하는게 처음이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여기 뉴질랜드 초학교에 전영어를 매우 잘 가르치더군요.

전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각종 대회도 나가고, 연극도 하고... 그러나 제 생애에는 가장 멋지고 소중한 추억은 마운트 쿡 캠프일거 같습니다. 빙하도 생애 처음 보고 만년산도 보고, 아무것도 친구들과 생애를 함께 재미있게 다치지 않게 도와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합니다. 전 앞으로 뉴질랜드에 있는 동안 재밌게, 보람 있게 생활을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